

수원 주보

QR코드를 스캔하면
주보의 각 지면을 소리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2019. 6. 2(다해) / 제1841호



제2대리구
오포 성당

설 립 2004. 10. 1
주보성인 성 정하상 바오로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사도 1,1-11

+ 제2독서

에페 1,17-23

또는 히브 9,24-28; 10,19-23

+ 복음

루카 24,46-53

화 답 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또는 ◎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시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
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매월 첫째 주일에는 「사제 양성을 위한 특별헌금」이 있으니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하늘로 오르시어 다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남아 있는 제자들을 보면 아직 미덥지 않아 당부할 것이 많지만, 그래도 믿고 맡기며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물론 머지않아 협조자 성령께서 내려오시어 이들을 인도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불안한 마음에 자꾸 미련이 남아 당부하고 또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마치도 아이들만 남겨 두고 멀리 떠나야 하는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며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는 모습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느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십니다.

하지만 엄마의 손길에 익숙한 아이는 멀리 떠나는 엄마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좋은데 왜 떠나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나중에 더 크면 알게 되겠지만 아직은 아니니 지금은 마냥 이별이 슬프기만 합니다.

이제 주님은 떠나고 안 계십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먼 하늘만 바라보다 주위를 둘러보니 꿈인 듯 현실인 듯 어색한 침묵 사이로 잔기침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이미 머릿속 생각은 하얗게 지워진 채 무엇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좋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보내 주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을 믿어야 하겠지만,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체험한 제자들은 성전에 모여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수난과 죽음이 왜 필요했었는지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명확히 깨닫게 되자, 이전에는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과 표징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시기로 되어 있는 성령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청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한마음으로 청할 일만 남았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글. 이근덕 헨리코 신부(교구 사목연구소 소장)

체험한 증언을 통한 신앙: ‘승천’과 ‘재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은 ‘루카 복음’(24,52)과 ‘사도행전’(1,9)에 나옵니다. 루카 복음에서는 ‘승천’을 ‘부활’과 연결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주님 ‘승천’의 ‘증인’인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한 ‘신앙’ 안에서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에서는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재림)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승천에 대한 신앙도 없으며, 승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재림에 대한 신앙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앙은 ‘체험’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수난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 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 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

다”(사도 1,3).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살아 계셨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얻어진 체험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언하는 신앙의 핵심은 곧 ‘하느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는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재림)에 이 지상에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늘날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증언은 잘못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란 물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재림을 통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원주보

글. 이수완 로마노(하상신학원 외래교수, 영성신학)

삶의 샘터


너희는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



‘예수성심’(시내홀), 이효진 테라즈 수녀

양근에서 순교한 하느님의 종 장사광 베드로와 손 막달레나 부부(상)

조선후기 양근은 현재의 경기도 양평군 전역과 광주시 일부분에 해당한다. 양근은 한국천주교회의 요람으로서 초기교회 당시 서울과 경기 일원의 신앙공동체를 충청도와 전라도로 널리 확산시킨 전국적 복음전파의 요충지였다. 1801년 전후까지만 해도 경기지역 신자의 90%는 양근을 비롯하여 여주, 이천, 광주 등 남한강 일대에 살고 있었고, 이 중에서 다시 대략 반 정도는 양근에 몰려 살고 있었다. 이곳 양근은 1791년 신해박해 때 이미 정조에 의해서 서울의 최제공, 내포의 이존창과 함께 당시 조선천주교회의 우두머리로 낙인 찍혀 ‘선참후계령’으로 위협당하며 배교하라고 협박을 받았던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가 성장하고 활동하던 곳으로서, 왕성한 교세에 걸맞은 탁월한 지도자를 배출한 고장이었다.

그러나 1792년 권일신의 순교에 이어 1801년의 신유박해 때 그의 형 권철신 암브로시오, 조동섬 유스티노 등 고을의 주요 지도자들이 순교한 후에는 교세가 상당히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기해박해 직전인 1836년경, 여전히 양근은 구교우와 예비신자만으로 대략 140~150명의 신자집단을 이루고 있던 경기 동북부 지역의 신앙중심지 기능을 했으며, 서울에서 이주한 장사광 베드로와 손 막달레나 부부와 같은 저명한 순교자를 배출해낼 수 있었다. 또한, 1837년 4월,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등 두 명의 선교사가 지방 최초로 합동 부활절 미사를 봉헌한 곳이기도 하다. 기해박해 때는 권철신의 손자인 권황과 권탁 형제가 관아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양근의 신자들은 기해박해를 지나 병인박해 때까지 관아의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을 받았지만 여전히 능말, 추읍, 마당재(지평) 등 산골로 옮겨가서 신앙공동체를 존속시켰고, 다수의 신자는 서울, 개성, 은이, 음성 등 다른 고을로 이주하여 복음을 전파하였다. 

글. 원재연 하상바오로(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원)

※ 정정합니다(제1840호 게재 내용 중)

- | | |
|-------------------------------|------------------------------|
| 1) 수원교구 관련 순교자만해도 200명 이상에... | → 수원교구 관련 순교자만해도 320명 이상에... |
| 2) 신태보 베드로(이천 출신)... | → 신태보 베드로(용인 또는 이천 출신)... |

영성의 향기

그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를 고이고이 되새김으로써
자기 마음을 고스란히 그리스도에 관한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 성 예로니모 「서간집」, 60,10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는 탄식으로 기진하고
밤마다 울음으로 잠자리를 적시며
눈물로 제 침상을 물들입니다.
저의 눈은 시름으로 멀어지고
저의 모든 적들 때문에 어두워집니다”(시편 6,7-8).

미사 때 화답송으로 읽는 시편에선 하느님 백성들의 ‘탄식’과 ‘호소’가 자주 나온다. 내 힘만으로 어찌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예수님처럼 ‘압바(abba, 아버지)’를 부르며, 이들은 하느님 면전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도와달라고. 세월 호의 사월과 광주의 오월을 지나치면 ‘억울한 이들의 죽음’이 묻어난다. 그래서인지 부활절을 넘어섰지만 하느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분이 그토록 사랑했다고 고백한 사람들은 여전히 아프고, 생존이 벅겁다. 그래서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제가 외치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시편 5,3)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기도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때로 의심하고, 때로 신뢰하는 신앙이다. 예수님은 모월 모일 모시에 승천하셨다는데, ‘우리’도 그만 승천하고 싶다. 삶이 그만큼 힘겹기 때문이다.

성경에선 하느님께서 그런 이들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전한다. 삶에서 절망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당신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한다. 그들은 ‘히브리 노예’였다.

이들을 해방시키라고 모세를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보내며, 하느님은 당신 이름을 알려주셨다. 야훼(Yahweh)다. 야훼를 <공동번역 성경>에선 “나는 곧 나”라 하고, <성경>에선 “있는 나”(탈출 3,14)라 번역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 성서학자들은 야훼 하느님의 이름을 앞 구절에서 찾아냈다. 노예해방을 명령받은 모세가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하고 묻자, 하느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3,12).

그러니, 야훼는 “너희와 함께 ‘있는 나’”라는 뜻이다. 노예들과 함께 있는 하느님, 노예들과 동반하시는 분이다. 노예들의 삶을 살피시고, 그들을 옹호하시는 분이다. 이 때문일까? 예수님은 공생활 벽두에 회당에서 굳이 이 구절을 찾아 읽으신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그러니, 예수님 별칭이 ‘임마누엘’(=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인 것은 당연하다. 하느님께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강을 건너는 이들 곁에 머무신다고 알려주신 예수님 덕분에 오늘, 다시 살아보자고 용기를 낸다. 

글. 한상봉 이시도로(가톨릭일꾼 편집장)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3차 홍보 주일 답화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에페 4,25)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인간 공동체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통신망은 우리 시대의 자원이며, 소셜 네트워크는 우리가 서로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서로를 더 잘 알며 서로 도움을 주게 합니다.

연대의 그물망을 이룬 공동체는 책임 있는 언어 사용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경청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공동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 네트워크에서도 서로를 향한 책임을 깨달아 공동체의 참다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오로 성인은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 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에페 4,25)하고 말합니다. 몸과 지체의 비유는, 우리 정체성이 친교와 ‘서로 다름’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성찰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또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알려 주시고자 우리 언어를 취하시어 역사 안에서 인류와 참되고 고유한 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 헌장, 2항 참조) 현재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관계에 노력을 기울이고, 인간의 관계적 본성을 네트워크 안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옹호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통신망을 활용하여 더욱 친밀해지고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 교회 공동체가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을 계획하고 성찬례를 함께 거행할 때 통신망은 친교의 자원이 됩니다.

네트워크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친교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성찬 친교로 엮어진 네트워크입니다. 성찬 친교에서는 ‘좋아요’가 아니라 진리, ‘아멘’을 바탕으로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 전문 QR



영상 QR ▶

바티칸에서
2019년 1월 24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프란치스코

수원교구 성직자 묘역 이전 ‘선종 사제별’ 이장 일정 계획 공지

(미리내 성지 → 안성추모공원)

수원교구는 지난 3월 사제평의회(2019. 3. 19.)를 통해 현재 ‘미리내 성지’에 안치되어 있는 <교구 성직자 묘역>을 ‘안성추모공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후보에 공지한 바 유가족들의 이견이 없었으므로, 5월 31일 오후 2시 미리내 성지 내 교구 성직자 묘역에서 공동 면례 예식을 거행하였고, 예정대로 올 10월 말까지 이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현재 미리내 성지에 안치되어 있는 선종 사제별 이장(파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여 드리오니, 유가족 여러분께서는 본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종 사제의 이장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유가족께서는 해당 선종 사제의 이장 일정 1주 전까지 안성추모공원[031-672-42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교구 선종 사제별 묘역 이장[緇禮] 일정 계획서

선종사제	세례명	선종일	파묘 예정일	선종사제	세례명	선종일	파묘 예정일
김영근	베드로	1971. 7. 14.	2019. 5. 31.	배문한	도미니코	1994. 8. 5.	2019. 8. 21.
안학고*	야고보	1980. 4. 13.	2019. 6. 5.	정주성	요셉	1995. 5. 24.	2019. 8. 28.
곽원량*	샤를 요셉	1914. 5. 26.	2019. 6. 5.	한봉주	글레토	1995. 9. 6.	2019. 8. 28.
육가은*	프란치스코 마리아	1934. 6. 28.	2019. 6. 5.	손태섭	마르코	1996. 8. 15.	2019. 9. 4.
박동현**	마르코	1949. 9. 23.	2019. 6. 12.	정덕진	루카	1996. 12. 19.	2019. 9. 4.
이중하***	야고보	1988. 4. 20.	2019. 6. 12.	장금구	요한크리스토포모	1997. 7. 11.	2019. 9. 25.
박경식	루카	1969. 5. 21.	2019. 6. 15.	이경재	알렉산델	1998. 5. 11.	2019. 9. 25.
강주희	방그라시오	1975. 4. 29.	2019. 6. 19.	신원식	루카	1998. 6. 4.	2019. 9. 28.
정원진	루카	1976. 3. 5.	2019. 6. 19.	배영무	라우렌시오	2000. 12. 20.	2019. 10. 2.
신성우	마르코	1978. 10. 5.	2019. 6. 22.	원국희	요셉	2002. 4. 17.	2019. 10. 2.
이중현	요한	1979. 3. 23.	2019. 6. 26.	김남수	안젤로	2002. 6. 1.	2019. 10. 5.
하한주	요셉	1984. 8. 7.	2019. 6. 26.	이중철	스테파노	2005. 2. 13.	2019. 10. 9.
정해성	토마스아퀴나스	1984. 10. 24.	2019. 7. 3.	한종훈	스테파노	2005. 10. 20.	2019. 10. 9.
박지환	요한	1985. 3. 29.	2019. 7. 3.	고건선	바오로	2007. 8. 16.	2019. 10. 9.
류봉구	아우구스티노	1987. 8. 2.	2019. 7. 6.	황익성	아우구스티노	2008. 8. 22.	2019. 10. 12.
길홍균	이나시오	1988. 4. 12.	2019. 7. 10.	이계항	베드로	2011. 2. 19.	2019. 10. 12.
강현홍	요한	1989. 3. 11.	2019. 7. 10.	김창린	필립보	2012. 5. 17.	2019. 10. 16.
조원길	그레고리오	1991. 1. 16.	2019. 8. 17.	이덕환	야고보	2012. 6. 26.	2019. 10. 16.
김효신	마티아	1994. 1. 19.	2019. 8. 21.				

비고 : * 파리외방전교회, ** 서울대목구, *** 한국외방선교회 신학생

금주에 기억할 사제



신원식(루가) 신부
1998년 6월 4일 선종

교구 소식

예비신학생 6월 모임

지원반

때 : 6.9(주일) 10:00
 곳 : 교구청 2층 강의실
 준비 : 성경, 묵주, 필기·미사도구
 예신수첩

중등부

때 : 6.16(주일)
 곳 : 각 지구별 시간 장소 확인
 준비 : 성경, 묵주, 필기 도구, 예신수첩

고등부(고1, 고2)

때 : 6.16(주일) 10:00
 곳 : 해당 대리구청
 준비 : 제1대리구 - 예신수첩, 실천표, 운동복장
 제2대리구 - 성경, 묵주, 필기 도구, 예신수첩, 미사 준비

☎ 031) 241-7969 교구 성소국(지원반)
 031) 8019-5398 제1대리구 교육연구팀
 031) 360-7638 제2대리구 청소년3국

가톨릭 생명사랑 가족 모임

때 : 6.9(주일) 10:30
 곳 : 교구청 지하 4회의실
 ☎ 010) 7148-4113

천진암 강학

때 : 6.9(주일) 09:30~16:30
 ☎ 031) 764-5953

제240주년 한국천주교회창립기념 행사

때 : 6.24(월) 11:00~12:30
 곳 : 천진암 성지 한민족 100년 계획
 천진암 대성당 건립 터
 미사 : 이용훈 주교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수에레브 대주교
 마르코 스피리치 몬시뇰 외
 내용 : 한국천주교회 창립 기념식
 경축 미사
 특전 : 전대사
 준비 : 미사준비, 도시락, 양산, 돗자리
 ☎ 031) 764-5953

제53차 교구 성경특강

제2대리구 : 6.11(화) 10:00~16:00
 분당성요한 성당
 제1대리구 : 6.13(목) 10:00~16:00
 정자동 주교좌성당
 주제 : 구약 성경 안에서의 화해와 용서
 강사 : 박형순 신부
 비용 : 7천 원
 준비 : 성경, 미사, 필기도구, 종식
 개인 컵
 ☎ 031) 8019-5400 제1대리구 성경사목
 031) 360-7633 제2대리구 성경사목

어능 성지 월례 음악 피정

때 : 6.22(토) 11:00~16:00
 주제 : 예수 성심
 미사 : 박상호 신부
 강사 : 이형진
 ☎ 031) 636-4061

채용

교구청

홍보국 홍보직, 전산직 / 6.7(금)까지

기관

성루카노인전문요양센터 간호조무사 / 6.4(화)까지
 ※ www.casuwon.or.kr '채용·공모'

기관·단체 소식

수원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밤샘기도

때 : 매주 금요일 21:00~00:30
 곳 : 하우현 성당 기도회
 감사 : 6. 7 - 이정우 신부, 황현 신부
 6. 14 - 이근희 신부, 황현 신부
 6. 21 - 배형진 신부, 황현 신부
 6. 28 - 지구별 밤기도회
 ☎ 031) 251-4400

제6차 디딤길 성지도보 순례

때 : 6.8(토) 10:30
 곳 : 천진암 성지~산북 성당
 일정 : 미사, 점심식사 후 도보순례
 준비 : 물, 간식
 비용 : 1만 8천 원(교통비, 중식)
 마감 : 6.4(수)까지 / 인원 : 선착순 40명
 참조 : cafe.naver.com/didimgil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때 : 441차 6.21(금)~23(주일)
 442차 7.19(금)~21(주일)
 곳 : 가톨릭교육문화회관
 인원 : 선착순 22부부
 ※ www.suwonme.or.kr
 ☎ 031) 251-2258 수원 ME

가톨릭 신문 성지순례			
7/ 5	바르셀로나, 파티마, 루르드	11일	395만원
7/12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12일	375만원
7/15	러시아, 코카서스	12일	475만원
9/ 3	이스라엘	9일	375만원
02) 2281-9070 www.cttour.org			

니트컴퍼니	
수원 음향 영상 시스템·스피커 마이크 빔프로젝터 종교시설, 상업시설, 관공서, 기업체 음향영상 설계시공 납품·장비교육·유지보수 정확하고 확실한 컨설팅과 합리적인 가격 031) 214-2390 이주홍(토마스 아퀴나스)	

가톨릭 여행사			
9/17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15만원
9/23	터키 그리스	13일	395만원
9/23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원
9/30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원
02) 319-2533, 010) 5235-3533			

성물방	
이태리, 프랑스, 독일 등의 수입성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smb.kr - 주문한 다음날 수령합니다. 02) 447-7396, 010) 3161-4511	

그린피스 이엔티	
제54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4~고2&대·일반 명동 성당 내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02) 3446-4253 그린피스 이엔티	

수맥 흙침대	
공장직영, 거실소파 주부 지참 교우 우대 근지암공장 전시 중 명동성당 앞 1588-5335	

수원 49차 약혼자 주말

때 : 7.5(금)~7(주일)
 곳 : 가톨릭교육문화회관
 대상 : 혼인을 앞둔 미혼 남녀
 혼인한 지 1년 이내 부부
 신청 : cafe.naver.com/sucee
 ☎ 031) 251-2258, 010) 9565-9321

미사·피정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곳 : 6. 4(화) 19:30. 오산 성당
 6. 7(금) 10:00. 중앙 성당
 6.10(월) 10:00. 분당성마태오 성당
 6.12(수) 10:00. 안성 성당
 6.14(금) 10:00. 시화성바오로 성당
 ☎ 02) 3673-2525

가정선교회 성가정 영성 1일 대피정

때 : 6.5(수) 09:30~16:30
 곳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강사 : 윤원진 신부, 이현주 회장
 준비 : 미사 준비, 개인컵(현장 판매)
 김밥(2천 원)
 ☎ 02) 777-1773, 010) 2367-2297

골롬반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해외선교)

때 : 6.9(주일) 14:00~17:00
 곳 : 평신도선교사센터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대상 : 만23세~만38세
 ☎ 02) 929-4841 www.columban.or.kr

네이버 직원을 위한 직장인 미사

때 : 6.13(목) 12:30
 ☎ 010) 7129-3626 이현기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효소 단식 피정
 때 : 6.6(목)~10(주일) / 비용 : 28만 원
 부부 피정
 때 : 6.21(금)~23(주일) / 비용 : 30만 원
 ☎ 010) 3340-0201

아씨시 수녀들과 함께하는 수도생활 체험 피정

때 : 6.8(토)~9(주일)
 대상 : 35세 미만 미혼 여성
 ☎ 010) 5313-0241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피아골 피정의 집·소록도 성당 피정

피아골 피정의 집 : 6.15~16, 6.22~23,
 6.29~30, 7.13~14,
 7.26~28, 8.2~4
 소록도 성당 : 6.8~9, 6.22~23
 7.6~7, 7.13~14, 9.28~29
 ※ 출발 : 사당역 1번 출구 7:10
 (죽전, 신갈 7:30 승차)
 ☎ 010) 5388-5706

제주 면형의 집 피정

일 반 : 6.22~24, 7.1~3
 추자도 : 6.10~13, 6.16~19
 내 용 :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자·
 역사·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 다음은 왕복항공권과 여름해변 또는
 우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일정
 포함
 때 : 7.6~8, 7.19~21, 7.27~30, 8.1~4,
 8.6~8, 8.10~13, 8.15~18
 ☎ 02) 773-1463, 064) 756-6009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35~45세만을 위한 피정(미혼 남녀)

때 : 6.14(금)~16(주일)
 곳 : 예수수도회(오류동 메리워드 교육관)
 ☎ 010) 9608-0208

음악 치유 피정 교육

때 : 6.29, 7.5(토) 10:00~17:00
 곳 : 본회 강남구 교육센터(일원동)
 대상 : 피정지도 담당 수도자 및 일반인
 회비 : 15만 원(교재 포함, 수도자 12만 원)
 지도 : 김경희 신부
 ☎ 02) 575-7661, 010) 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인천교구 지혜의 샘 교육

월 : 전문 선교사 양성반
 화 : 오전·성경 핵심
 오후·성경 도형들
 수 : 오전·성경 핵심
 오후·신약 강해
 목 : 오후·말씀치유 낮 기도회
 금(18:00~04:30) : 성시간, 말씀치유
 화·금 공통 : 성경 통독, 미사, 묵주기도 100단
 주일(10:00~17:00) : 묵주기도 100단,
 낮 기도회, 미사
 곳 : 부천시 송내동 366-5
 ※ www.jwisdom.or.kr
 ☎ 032) 343-1871

모집·기타

앗숨도미네 뮤지컬 극단 단원 모집

모집 : 어른 및 어린이(초5까지) 배우,
 악기연주자(건반, 기타, 드럼)
 신청 : musical@adsumdomine.org
 ☎ 010) 9935-7870

스타키보청기
노인성 난청 상담·보청기 상담 수원 이춘택병원 1층 031) 232-1474 임종혁(요한)
전통잔치
결혼·돌·제사·회갑·집들이·야유회·개업식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91-9(수성중 옆) 031) 253-3495, 010) 8298-3495 이은향(안젤라)

씨피여행사
6/16 북유럽 발트3국 12일 LH 460만원 8/30 베트남 다낭성모성지 5일 117만원 9/24 이스라엘 9일 순례 370만원 10/ 8 동유럽성지순례 12일 LH 380만원 1644-5925
비안네 성지순례
9/30 일본 나가사키 3박4일 110만원~ 10/21 성모님 발현지 4국 11박13일 395만원~ 11/21 이스라엘, 요르단 7박9일 379만원~ 031) 706-9175

이오소피아 성지순례 2019
8/19 상해 항주 김대건신부님 최항업신부님 수품성당 및 임정발자취순례 90만원 10/9 멕시코열(과달루페성모님 칸쿤 차첸이트) 선착순 10명 375만원~ 전 순례 출발확정 031) 239-2571이진영(라파엘)
향술품들방
고품질 침구 제작 갈싸개(카바)맞춤 / 각종 솜 재생 031) 294-2006, 010) 2294-2003 오연수(라싸)

수원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 모집

때 : 6월 중 매주 수 17:30
 곳 : 교구청
 방법 : (지정곡) 가톨릭 성가 4번 '찬양하리'
 (자유곡) 성가/동요
 간단한 시창과 발성(음역 테스트)
 대상 : 초2~6학년 세례 받은 신자
 (첫영성체 예정자)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및 전화 신청
 · unitas.or.kr
 · ana1026@naver.com
 · 010) 4715-5570

전례초 조각 강좌 수강생 모집

때 : 매주 화 11:00~13:00, 3개월(학기제)
 곳 : 부락종합사회복지관
 대상 : 성인 15명
 비용 : 28만 원(재료비 별도)
 접수 : 매월 20~31일까지
 ☎ 031) 611-4820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성물조각, 가구제작 수강생 모집

참조 : cafe.naver.com/cmc04
 ☎ 010) 5234-5044 가톨릭목공예

사회복음화국 재능기부·봉사자 모집

분야 : 교육, 노력, 문화, 전문기술, 의료,
 상담 기타 등
 (1365 봉사시간 인정)
 봉사자가 필요한 본당 연락 바람
 참조 : 1004.casuwon.or.kr
 ☎ 031) 268-3907

중원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모집

때 : 7.8(월) 재오픈 예정
 대상 : 성남시 거주자로 장기요양등급
 2~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
 내용 : 송영서비스(오전, 오후), 신체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등
 위치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4층
 중원주간보호센터
 ☎ 031) 751-7455 jwnoin.org

지체 장애인선교회 봉사자 모집

모집 : 남 0명 여 0명
 ※ 1365 봉사시간 인정
 ☎ 031) 689-5844, 010-2884-9478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여름 국제 캠프

때 : 7.13(토)~8.5(월)
 대상 : 초3~중2(선착순 남 15, 여 10명)
 주최 :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 02) 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2019 여름방학 필리핀 영어 캠프

때 : 7.20(토)~8.18(목) 4주
 곳 : 필리핀 팍상한 마리아의 아들 수도원
 대상 : 초4~중2 50명
 비용 : 320만 원
 신청 : blog.naver.com/cficengcamp
 주최 :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 031) 207-4982, 010) 4442-4982

cpbc 가톨릭 영어 캠프

미국 : 샌프란시스코부터 실리콘밸리와
 LA까지, 국내 유일의 샌프란시스코
 미국 영어 캠프!
 버클리·스탠포드·UCLA 탐방, 구글,
 애플 견학
 영국 : 옥스포드 브룩스 캠프와 서유럽
 투어
 사이판 : 가톨릭 국제 사립학교 캠프
 필리핀 : 1대1 맞춤 캠프
 ※ 미국, 캐나다 중·고등학교 입학 상시
 문의
 ☎ 02) 734-0999 www.cpbc.co.kr

제21차 프란치스코 영성 학술 발표회

때 : 6.24(월) 08:30~26(수) 17:10
 곳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주제 : 프란치스코와 도미니칸 학문 전통
 비교
 대상 : 영적성장을 바라는 모든 분
 비용 : 10만 원(1일 4만 원, 중식 제공)
 ☎ 02) 6364-5640 프란치스코사상연구소

커피 바리스타 교육

기간 : 주1회 12주 교육
 과정 :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
 참조 : club.catholic.or.kr/barista
 주최 : 가톨릭바리스타협회
 ☎ 010) 9040-8306, 010) 2511-6845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는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 064) 758-6476, 010) 4566-6476

안산생명센터 상담소

때 : 월~금요일 10:00~17:00
 내용 : 자살, 낙태, 폭력, 은둔형 외톨이
 회복 방문 상담, 부모 상담 및 무료
 법률 상담
 방법 : 전화, 이메일, 방문
 · 031) 365-4770~2
 · aslife@casuwon.or.kr
 ·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101
 명인빌딩 3층

대견청소년 상담소

때 : 매주 월, 수, 토, 주일 10:00~17:00
 곳 : 제1대리구청 2층 상담소
 내용 : 가족 및 대인 관계, 학습 및 진로, 성 상담,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신앙상담 등
 대상 : 중·고등학생,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20대 대학생, 청소년과
 관련있는 성인 등
 참조 : www.csdly.or.kr
 ☎ 031) 8019-7722

본당 소식

'본당 소식' 보기 QR 코드 ▶
 내용 : 본당 행사, 봉사자
 모집
 신청 : jubo@casuwon.or.kr



성 소 모 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예수회	6.8(토) 15:30	예수회 센터 이냐시오카페	010-3324-0731	vocatio.jesuits.kr

hey kakao

카카오미니로 신앙생활을 더 가깝게 즐기세요



헤이카카오, 성가 100번 들려줘

매일미사에서 오늘의 복음 읽어줘

가톨릭 요한복음 1장 들려줘

“헤이카카오, 천주교에서 주님의 기도 읽어줘”

“헤이카카오, 성무일도 시작해줘”

“헤이카카오, 매일미사 시작해줘”

“헤이카카오, 평화방송 라디오 틀어줘”

⋮

이런 것도 가능해요



종교

“성가 100번 들려줘”

“매일미사에서 복음 읽어줘”

“천주교 창세기 1장 들려줘”

“천주교 주님의 기도 읽어줘”

“성무일도 시작해줘”

“성무일도에서 독서기도 해줘”



인물 검색

“1대 교황은 누구야”

“김수환 추기경에 대해 알려줘”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 알려줘”



카카오미니C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확인